

2-15-2026 주일 설교 메시지
금주의 묵상: 시편 91:1-16
본문말씀: 시편 50:1-23
말씀제목: 교훈을 싫어하며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

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빛을 발하며 나타나실 것입니다.

그때 그분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, 그 주위에서는 광풍이 불 것이라고 아삽이 증거했습니다.
그분께서는 우선 먼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판단하실 것입니다.

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:

“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.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.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. 셀라.
오 내 백성아, 들을지어다. 내가 말하리라.
오 이스라엘아,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.
나는 하나님, 곧 너의 하나님이라.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네 희생제나 네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.
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
숫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
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, 일천산 위의
가축들도 내 것임이라. 내가 산의 모든
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.
내가 설령 깎주릴지라도 네가 말하지

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.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?
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들을 갚으라.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.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.”(시 50:5-15)

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:

“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.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?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.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발하는도다. 네가 앓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.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.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 앞에 정연하게 두리라.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, 이것을 생각하라.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쳇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.”(시 50:16-22)

다윗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규례와 계명들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:

“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,
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
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
마음을 기쁘게 하며, 주의 계명은
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.”(시 19:7-8)

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:

“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
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
혼과 영,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
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
판별하느니라.”(히 4:12)

그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고증거했습니다(엡 6:17)

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. 한쪽 날은 진리의 날이며 다른 한 쪽의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, 그리고 곤잘과 골수를 찔러 가를 때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과 의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은혜의 칼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. 또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혼이 죄의 몸을 벗어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할례(골 2:11)를 통해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,

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고(히 4:13)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.

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또는 듣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빛을 피하지 말고 받아드림으로 말씀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.

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:

“오 하나님여,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
사람이 나를 삼키려하고 날마다 공격하며
나를 압제하나이다. 나의 원수들이
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. 오 주,
지극히 높으신 분이여, 나를 대항하여
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. 내가 무서워할
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. 하나님 안에서
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
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. 나는 육체가
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
아니하리이다.”(시 56:1-4)

아멘! 할렐루야!